



1



2

결핵 걱정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지난 9월 6일, 파란 하늘과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 속에 대한결핵협회 직원 십여명은 충남 예산 신암면 두곡리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미리 기다리고 계시던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주민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마을회관에 모여앉아 부녀회 어머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직원들은 모자와 장갑을 챙겨두고 어디론가 움직일 준비를 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들은 무얼 하려고 낯선 농촌 마을을 찾아간 걸까?

신암면 곳곳에는 9월 7일, 농업기술원에서 결핵검진과 관절치료 의료행사가 실시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대한결핵협회와 농협중앙회, 힘찬병원이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 1 홀로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 찾아 집 정리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린 직원들.
- 2 협회 ONE-STOP 검진차량을 이용해 검진을 실시했다.

신암면 곳곳에는 9월 7일,
농업기술원에서 결핵검진과
관절치료 의료행사가
실시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대한결핵협회와
농협중앙회, 힘찬병원이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태풍 피해 입은 두곡리 일손 돕기 나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2011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연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결핵환자가 전체 결핵환자의 30%를 차지할 만큼 노년층의 결핵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편이라 결핵의 예방과 발견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결핵협회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 무료 검진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결핵협회 직원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힘을 보태고자 행사일보다 하루 먼저 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 활동에 나섰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채비를 마치고 마을 어르신들을 따라 향한 곳엔, 비닐이 뜯겨나간 채 휘어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비닐하우스가 있었다. 지나간 태풍은 잊은 채 새파랗게 빛나는 하늘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그나마 몸이 성하고 기력이 왕성한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보수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우리를 안내해주신 아버님은 허리가 불편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며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셨다. 아버님의 웃는 얼굴에서도 착잡한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정성껏 길러졌을 과수들이 메마른 채로 잡초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 여기저기엔 익다만 과일들이 밭에 밟혔다.

작업에 서툰 직원들이었지만, 아버님을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에 능숙치 않은 손놀림으로 알려주신 일들을 하나 하나 해 나갔다. 어지럽게 널려 있는 비닐들을 정리하고 휘어진 철봉들을 해체했다.

아버님도 처음엔 못미더워 하시는 눈치더니, 제법 일을



잘해내는 직원들을 보시고는 이것저것 시켜주셨다. 짧은 시간 동안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새것처럼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른 일터로 자리를 옮겼다.

사과가 유명한 예산지역에서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 이번엔 블루베리 밭에서 김매기를 도왔다. 역시나 서툰 손놀림으로 지저분한 잡초들을 뽑다 보니 어느새 산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부녀회 어머님들께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저녁식사까지 챙겨주셨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자꾸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지만 밥은 너무나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둘러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갔다.

ONE-STOP 검진 통해 주민 건강 챙겨

이튿날엔 평소 안하던 일을 해서인지 잠에서 깬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오전부터 시작된 건강검진 행사에는 바쁜 중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고,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셨다. 주민들의 결핵검진을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청호남에서 ONE-STOP 검진차량 세 대가 출동했다.

침단검진장비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리프트 장비까지 마련되어 있는 차량 덕분에, 어르신들 검진도 훨씬 수월했다.



이번에 농촌 방문을 하면서
결핵에 관한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느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

결핵검진을 받은 주민들은 힘찬병원의 전문 의료를 통해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와 함께 간단한 처방도 받을 수 있었다. 농작업으로 인해 관절질환을 앓는 농촌 주민들이 많아 호응이 좋았다.

한참 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 몇명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장님을 따라 찾아가는 곳은 할아버지 홀로 지내시는 집이었다. 미리 준비한 선물을 손에 들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콕 메어왔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식사를 하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시던 할아버지는 직원들을 보자 눈물을 보이시며 담아두었던 답답함을 쏟아내셨다.

태풍으로 망가진 집은 다행히 이장님의 도움으로 수리가 되었지만,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께서 홀로 지내시는 집안은 쓸쓸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그저 사람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반가우신 듯 보였다. 직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의 추사고택으로 나들이를 나간 동안 다른 팀은 방안 구석구석 집 정리를 해드렸다.

이번에 농촌 방문을 통해 결핵에 관한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

농촌지역의 결핵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통계로서만 문제를 인식해왔었는데, 이틀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과 보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결핵협회가 농촌과 함께 어울려 성장해나가길 바라며, 지면을 통해 두곡리 마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3,4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보수작업에 한창인 직원들.

